

가정예배 · 구역예배교재

8

충현의 만나

2008

가정예배 역대하 · 에스라
 느헤미야 · 마태복음

구역예배
남성구역예배

대한예수교
총회
충현교회

가정예배 · 구역예배교재

8

2008

충현의 만나

가정예배 역대하 · 에스라
 느헤미야 · 마태복음

구역예배
남성구역예배

『충현의 만나』는
성도들의
가정예배와 구역예배를
돕기 위해
충현교회가
매달 발간하는
교재입니다

기도제목

- ① 교회의 방패와 상급(창 15:1)이 되시는 주님을 믿음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영원의 세계(요 18:36)를 향해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소서.
- ② 위임목사님의 사역을 성령께서 통치하심으로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데 사용하여 주시며 영육을 강건하게 하소서.
- ③ 모든 위원회와 산하 부서들을 통하여 우리 교회가 시온성과 같은 교회(마 16:18)로 세워지게 하소서.
- ④ 모든 성도들이 한 영혼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빌 2:5)으로 십자가의 복음을 증언하는 '가는 선교사, 보내는 선교사'가 되게 하소서.
- ⑤ 1·1·1 전도와 총력 교회주변 전도(매월 둘째 주 수·토요일)를 통하여 우리 이웃과 교회주변의 영혼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하소서.
- ⑥ 매주일 등록하는 새가족들이 거듭나 보혈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들이 되게 하시며 예루살렘 찬양대를 통하여 금요찬양집회가 십자가의 은총으로 풍성하게 하소서.
- ⑦ 총현의 재단(유지·동산·복지)들이 복음을 전하는 데 하나되며 현재 추진 중인 양로원, 납골시설 건립 및 모든 사역이 은혜 중에 진행되게 하소서.
- ⑧ 피택받은 일꾼들이 모든 교육(4. 6.~10. 4.)을 통하여 자기를 부인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십자가의 정병이 되게 하소서.

믿음의 순종, 영혼구원의 기쁨

“벨엘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라”

하나님은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두 세계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믿음의 순종이 필요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우리의 시선을 현실에 묶어놓고 제한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십자가는 기적입니다. 십자가만이 구원의 통로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만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영혼들을 향해 나아가십시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기초한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구원의 기적을 전하십시오.

영혼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2008년 8월을 맞이하며 위임목사 김 성 관

가정예배 순서

찬 송	다 같이
성경 봉독	사회자
메시지 낭독	
기 도	다 같이
주기도문	다 같이

• 예배 소요시간

약 15분 내외가 적합

• 예배 사회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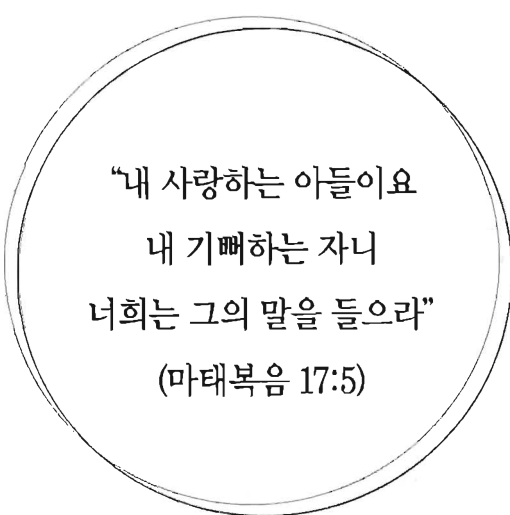
가장 또는 가족이 돌아가면서 순번제로 인도

• 찬송과 성경본문

가정예배 안내서의 해당일자에 소개된

찬송을 부르고, 성경본문을 봉독

매일 성경묵상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마태복음 17:5)

유다 왕 므낫세는 부친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며 비알과 아세라를 비롯한 각종 우상을 만들어 섬겼습니다. 또 여호와와 전에 우상을 위한 단을 쌓고 성전의 두 마당에 일월성신을 위한 단을 쌓았으며 인신제사(6절)를 비롯한 사술과 요술을 행하고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였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므낫세를 적국 앓수르의 포로로 붙여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 땅으로 끌고 가게 했습니다.(11절) 므낫세는 환난을 당하여 하나님께 간구하고 회개함으로 용서를 받고 다시 왕위를 회복하게 됩니다. 므낫세의 아들 아몬 왕은 부친이 변화되어 여호와 앞에서 겸손했던 것 같이 하지 아니하고, 더욱 범죄하였습니다.(23절) 그는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입고 그의 신하의 반역으로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24절)

악인의 삶과 그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보고도 돌이키지 않고 계속 그 길로 행하는 인간의 완악함이란 얼마나 강하고 무서운지요!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를 내버려 두신다면, 모두 죄 가운데 멸망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에 그 은총을 입는 것입니다. 아무리 심한 죄에 빠졌다 할지라도 회개하기만 하면 예수님이 갈보리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회개하는 심령을 주십니다. 회개의 부르심에 순종하기 원합니다. 나의 죄악을 내려 놓고 회개할 때 나를 용서해 주신 십자가의 은총을 뜨겁게 체험하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대하 33:12)

기도 제목 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게 하소서. ② 모든 예배와 집회가 십자가의 보혈로 충만하도록 은혜를 주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

유다의 마지막 선한 왕 요시야는 왕이 된 지 8년 만에 종교개혁을 단행하여 10년 동안 예루살렘과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지역을 두루 다니며 온갖 우상들을 파괴하고 그 땅과 성전을 정결하게 합니다.(1~7절) 오랫동안 황폐된 예루살렘 성전을 수리하고 정화하는 일을 시작합니다. 성전을 수리하던 중에 제사장 힐기야는 모세의 율법책을 발견하게 되고,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준행하지 않은 죄를 깨닫고 자기 옷을 찢으며 크게 회개합니다.(14~21절) 하나님께서는 요시야가 겸손하여 옷을 찢고 통곡함을 보시고 열조의 죄악으로 인해 내리려던 모든 재앙을 연기하여 주셨습니다.(27~28절) 요시야는 율법책을 모든 백성들에게 들려주고 여호와 하나님께 순종을 다짐하는 언약식을 하고 여호와께 복종하게 하였습니다.(29~33절)

지금 이 세상은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인 것과 같이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해 있습니다.(눅 3:9) 곳곳마다 징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심판이 지금 당장에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딤후 2:4)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민족에게 나아가 회개하고 구원받도록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가 전한 복음으로 인하여 십자가의 보혈은 열방의 땅을 적시고,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며 요시야의 개혁이 일어나는 역사가 오늘날에도 나타나기 원합니다.

“왕이 자기 처소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 하고”(대하 34:31)

기도 제목 ① 말씀이 육신 되어 오신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소서. ② 천천의 모든 성도들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는 증인들이 되게 하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

요시야가 백성들과 함께 유월절을 지킨 것은 신앙회복운동의 최고의 열매입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된 자리에서 구원받은 것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구속사적으로 볼 때 이 절기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죄 사함과 구속함을 입은 것을 의미합니다. (히 9:12~14) 요시야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에게 명하여 유월절을 준비하게 하고(7~9절) 율법의 정한 규례에 따라 유월절 양을 잡고(11절)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인 온 유다와 이스라엘 무리와 예루살렘 주민과 함께 유월절을 지켰습니다.(18절)

유월절 양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제물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대속하신 예수님을 뜻합니다. 유월절 양이 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유월절은 성만찬의 기초이며, 어린 양의 혼인잔치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제자들과 함께 성만찬을 행하심도 유월절 희생양이 되심을 예표합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신 예수님! 이 유월절의 벅찬 감격이 성만찬으로 이어지는 기쁨이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 앞에 내려 놓지 못하고 있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회개하며 유월절을 회복한 요시야와 같은 믿음의 회복이 우리에게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요시야가 예루살렘에서 여호와께 유월절을 지켜 첫째 달 열넷째 날에 유월절 어린 양을 잡으리라”(대하 35:1)

기도 제목 ① 주님을 향한 처음 사랑을 회복하게 하소서. ② 모든 성도들이 거룩한 산제사로 살아 있는 예배를 드리게 하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

남유다의 마지막 네 왕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여호야킨, 시드기야 왕의 역사입니다. 그들은 공통적으로 극히 짧은 기간을 통치했으며, 통치 기간 대부분을 불순종과 죄악으로 일관했습니다. 그들이 멸망하게 된 궁극적인 이유는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유다의 멸망은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싫어한 유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였습니다. 역대기를 마치며 선민의 역사가 유다의 멸망으로 끝난 것은 아닙니다. 22~23절에는 선민국가의 재건을 허락하는 고레스의 조서 반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 세워진 유다왕국이 불순종과 저역으로 멸망 받았지만 그 민족 자체는 없어지지 아니하고 유지되다가 바사 왕 고레스 때에 이르러 다시금 본토로 귀환하여 나라를 회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습니다. 멸망 받아 마땅한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합니다. 이 약속은 장차 이 백성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언약입니다. 이스라엘을 포로생활에 영원히 버려두지 않으시고 귀환시켜 주실 것을 약속하신 것을 보며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 하나님의 심판과 동시에 새 사람을 만드셔서 정결하게 사용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깨달으며 더욱 심자가만을 붙들기 원합니다.

“.....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 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대하 36:23)

기도 제목 ① 주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믿고 살게 하소서. ② 교회의 방패와 상급이 되시는 주님을 믿음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성도들이 되게 하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

바사 왕 고레스의 칙령으로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 갔던 유다 백성이 본국으로 귀환하게 된 것은 이사야(사 44:21~28, 45:1,5)와 예레미야(렘 25:12~13, 29:10)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구원약속이 성취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고 포로가 되었던 유다 백성이 본국으로 귀환할 수 있다는 조서가 내려지고(1~4절), 이에 감동한 유다 백성은 성전제전에 필요한 예물들을 풍성히 드립니다.(5~11절)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의 마음까지 간섭하시어 계획하신 바를 성취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역사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만이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바사 왕 고레스 원년에 내려진 유대인 포로귀환 칙령은 이스라엘을 다시 본토로 데려오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됨을 보여줍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실 뿐만 아니라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창조주께서 피조물로, 인간의 몸을 입고 피조물의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이 비밀을 은총으로만 깨닫게 해 주심에 더욱 감사하게 됩니다. 영원의 세계 속에 믿음만이 말구유의 예수님을 메시아로 만날 수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며 “우리의 역사가 우리의 삶의 주권자 되신 주님의 것입니다.”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이 은총의 비밀을 증언하는 삶이 있기를 원합니다.

“바사 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스 1:2)

기도 제목 ① 오직 영원한 우리의 본향 천국을 사모하게 하소서. ②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모든 민족과 열방을 향하여 기도하는 일이 일어나게 하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

스룹바벨의 주도하에 실시된 1차 귀환자들의 수가 족속별(3~20절), 출신 지역별(21~35절), 제사장(36~39절), 레위인 및 성전봉사자들(40~58절), 왕의 신복(59~63절) 순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귀환자들의 총합계가 소개됩니다.(64~70절) 이처럼 귀환자 명단과 인구수가 매우 자세히 소개된 것은 이 사건이 실제로 있었던 역사적 사건이요, 하나님께서 그들 각자를 불러주신 초청의 의미를 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천국시민된 우리들의 이름 하나하나를 이같이 명확하게 불러주시며, 천국으로 인도하십니다.

실로 바사에서의 행복하고 안정된 삶을 마다하고 약속의 땅을 향해 돌아왔으니 이들의 이름이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존귀할 것입니다. 이들이 왜 본토로 귀환했을까요? 이 세상의 안락하고 편안함을 추구하지 않고 십자가를 지고 주를 위해 고난당하는 삶을 선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길은 고난이 따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매일 매일 죽는 길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좁은 길을 가기 원합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마태복음 1장에 기록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내놓을 수 없는 다말과, 라합같은 부끄러운 이름일지라도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되었듯이 죄 중에 거하는 우리의 이름이 에스라의 귀환 포로자들의 명단 속에 함께 기록되며, 영원한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되기를 소원합니다.

“어떤 족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 터에 이르러 하나님의 전을 그 곳에 다시 건축하려고 예물을 기쁘게 드리되”(스 2:68)

기도 제목 ① 천국의 시민권자로서 자기를 부인하며 믿음으로 좁은 길을 걷게 하소서. ② 위임목사님의 사역을 성령께서 통치하여 주시고 영육을 강건하게 하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

예루살렘에 도착한 무리들은 제일 먼저 단을 쌓고 번제를 드렸으며 (1~6절), 무너진 성전을 복구하기 위한 제반 준비를 마치고 복구작업을 시작하였고(7~9절), 성전의 기초 지대를 설치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이 건축의 처음과 나중을 주관해 주시기를 바라며 착공예배를 드립니다. (10~13절) 우리가 무슨 일을 할지라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서 있는 위치를 한번 되돌아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 있습니까? 혹은 하나님을 떠나 이 땅의 각종 우상들, 곧 인생의 자량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을 좇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십자가와 멀리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토로 돌아와서 이방인들의 온갖 방해도도 불구하고 성전건축에 착수하였듯이 우리의 삶도 예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삶의 중심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뿐입니다. 우리의 삶에 많은 도전과 유혹이 있습니다. 십자가와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늘 우리를 넘어뜨립니다. 우리의 즐거움이 주님의 십자가를 전하는 일에 집중될 때 우리는 이러한 시험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 심령에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십시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며 복음을 전하는 일에 헌신할 때 주님은 우리 심령의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여 주십니다.

“그 후에는 항상 드리는 번제와 초하루와 여호와의 모든 거룩한 절기의 번제와 사람이 여호와께 기쁘게 드리는 예물을 드리되”(스 3:5)

기도 제목 ① 무너진 마음의 성전을 다시금 회복하게 하소서. ② 모든 위원회와 부서들을 통하여 우리 교회가 시온성과 같은 교회로 세워지게 하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인 사마리아인들이 영토권을 위협받는 것을 두려워하여 성전재건 공사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혼합 종교주의자들인 사마리아인들이 종교적 술책이나 뇌물을 통해 유다 백성의 성전재건 공사를 방해한 사실(1~5절), 학사 에스라의 주도하에 이뤄진 제2차 포로귀환(B.C. 458년)을 전후하여 실시된 성곽재건 작업을 훼방하기 위해 아하수에로(B.C. 485~464년)와 아닥사스다 1세(B.C. 464~424년) 통치기간에 발생했던 사마리아인들의 고소사건과 그로 인한 공사중단 사실이 연대기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6~24절)

하나님의 일에는 언제나 악한 사탄의 도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로 인해 두려워하거나 낙망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주어진 사명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믿음의 길로 들어선다는 것은, 타락하고 죄악된 세상과의 치열한 전투를 시작한다는 뜻입니다. 선교를 준비하는 기간이나, 선교현장에서 또는 매일 부딪히는 일상의 삶에서 마귀는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도록 아름답게 포장하여 우리를 시험하며, 우리의 양심을 유혹합니다. 그럴 때 어떻게 분별하며 이겨내야 합니까?(1~6절)

말씀에 기초하여 분별하며,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싸워야 합니다. 우리 자신의 힘으로 싸워서선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겐세마네에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자기를 부인하고 온전히 순종함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기 원합니다.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악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스 4:4)

기도 제목 ① 사탄의 공격을 능히 이길 수 있는 은혜를 주소서, ② 예루살렘 찬양대를 통하여 금요찬양집회가 십자가의 은총으로 풍성하게 하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

성전건축 중단으로 친제한 유다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두 일꾼(학개, 스가랴)을 불러내시어 그들이 백성들을 위로하고 격려한 끝에 건축이 재개될 수 있었습니다. 이에 사마리아인들이 지난번 보다 좀 더 적극적으로 방해합니다.(11~17절)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위해 필요한 일꾼을 세우시고 그들을 통해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는 백성들을 격려하며 그 소명을 다하고 있습니다.(1~2절) 따라서 우리는 어떤 시련 속에서도 낙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고비마다 마음에 합한 자를 들어 이 세상을 간섭하시며 책망하십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음의 일꾼 삼아 십자가 말씀을 전하라고 하신다면 우리는 무엇이라 대답하겠습니까?

우리가 믿음생활을 하면서 실패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때 그분이 어떤 분이며, 우리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알고 믿어야 합니다. 우리의 가치관의 틀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판단하고 내 가치관에 맞을 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자기부인으로 내 생각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십자가 외에는 소망이 없으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세상의 빛이며 구원자이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하옵소서.” 우리는 주님이 가신 그 길을 가야합니다. 이 길은 고난의 길이고, 좁은 길이며, 십자가의 길입니다. 오늘도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바벨론 왕 고레스 원년에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하고”(스 5:13)

기도 제목 ①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신실한 일꾼이 되게 하소서. ② 모든 성도들이 십자가의 복음을 증언하는 ‘가는 선교사, 보내는 선교사’가 되게 하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

성전재건 허락에 대한 다리오 왕의 확인과 더불어 재건에 필요한 불자 공급(1~12절), 다리오 왕 6년 아달월 3일(B.C. 516년 2~3월 3일)에 성전 재건을 마치고 봉헌하는 장면(13~18절)과 단절되었던 유월절 예식을 거행하는(19~22절) 모습 등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어떤 방해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한번 계획하시고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어 내십니다. 고레스 왕은 성전재건 사업의 합법성 여부를 확인한 다음에 성전재건 사업을 적극 지원합니다. 성전재건 사업이 활발하게 재개될 수 있었던 것은 단지 고레스 왕의 호의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고레스 왕의 마음을 주장하신 하나님의 간섭과 인도하심입니다. 이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심으로 완성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뜻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 예수님이 우리 가슴 속에 살아계십니다. 무엇을 두려워하십니까? 단순하게 믿으십시오. 단순하게 복음을 증거하십시오. 성전재건 사역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듯이 우리가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온전히 자기를 부인하고 내려 놓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떠한 형편에 처하든지 믿음으로 이겨내며 복음의 정결한 통로가 되기 원합니다. 영원 속에 동참하는 삶의 증거가 우리에게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말고 유다 총독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이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게 하라”(스 6:7)

기도 제목 ① 날마다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선한 청지기가 되게 하소서. ② 각 교회학교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만이 선포되게 하시고 보혈의 은총으로 흠뻑 적셔지게 하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

제2차 포로 귀환(B.C. 458년)입니다. 제사장 출신이자 율법에 능통한 학자였던 에스라를 중심으로 2차 귀환자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하고(1~10절), 바사 왕 아닥사스다(B.C. 464~424년)가 2차 귀환명령을 내린 것과 더불어 성전과 예루살렘 재건에 필요한 물품을 원조해 준 내용(11~26절) 등입니다. 놀라운 은총 가운데 예루살렘에 귀환하게 된 에스라의 제사장 신분이 강조된 것은 귀환한 유다 백성에게 가장 시급하고 절실한 것이 여호와 신앙의 회복이라는 사실을 말쓰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정립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에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목적이며 날마다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은총입니다.

모든 성경말씀이 십자가를 향하고 있음을 발견하도록 영의 눈이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신실히 지키실 뿐만 아니라 택한 백성들에게 놀라운 축복을 계획하고 계십니다. 에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준행하여 가르쳤습니다. 여호와 앞에 신실했던 에스라는 바사 왕 아닥사스다의 신임을 받았고, 또한 그를 감동시켰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붙들었던 에스라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포로귀환 사역을 완수하고 “모든 방백의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내 하나님 여호와와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28절)라고 고백합니다. 우리의 계획과 뜻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순종하며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손에 이끌림을 받는 은혜를 입기 원합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스 7:10)

기도 제목 ①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하소서. ② 충현의 모든 성도들이 새벽을 깨우며 그리스도의 보혈로 충만한 가운데 살게 하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

바벨론에서 함께 올라온 족장들과 백성들 가운데서 레위 자손이 있는지 살핀즉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15절)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수종들 사람들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에스라는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수종들 사람들을 데려오라고 명령합니다.(17절) 족장들은 에스라의 명령을 순종하여 레위 자손들을 데려와 하나님의 전을 섬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에 순종하며 복음의 증언자로 살아갈 헌신된 일꾼들을 찾으십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여러분은 무엇을 목적으로 사십니까? 모든 것이 지나가지만 우리에게 영원히 남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기에 십자가 복음을 전하라는 부르심에 순종하는 헌신이 있어야 합니다.

에스라는 예루살렘으로 출발하기에 앞서 모든 백성으로 하여금 금식을 하게 합니다. 그들의 귀환에는 수많은 장애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21절) 에스라의 손에는 왕의 조서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러나 에스라는 그것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바벨론 왕보다도 모든 인생의 왕이신 하나님을 더 의지하기로 한 것입니다. 왕에게 도와달라고 요청할 수도 있었지만 그것을 부끄러워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22절)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담대한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도우실 수 있습니다.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생명이요 도움이시며 소망이십니다. 번사에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영원의 세계를 바라보며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 헌신하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낙하심을 입었느니라”(스 8:23)

기도 제목 ①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게 하소서. ② 현재 추진 중인 양로원, 납골시설 건립이 은혜 중에 진행되게 하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예물과 번제를 드린 유다 백성들이지만(8장) 그들은 얼마 되지 않아 하나님 앞에서 다시 범죄하고 맙니다.(1~2절) 이에 에스라는 회개함과 겸비함의 표시로 속옷과 겹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3~5절) 그리고 그들 열조의 죄악으로부터 시작하여 자신들의 모든 죄를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참된 영적 각성은 십자가를 통하여 죄의 심각성을 깨닫는 데부터 출발합니다. 주님의 고난과 매 맞음을 보면서 우리 죄악의 흉악함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의 죄를 깨닫고 참된 회개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의 은혜를 간구해야 합니다.

에스라의 회개기도는 매우 구체적이며 철저했습니다.(6~15절) 회개는 철저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행 3:19) 회개는 참으로 중요합니다. 회개 없이는 하나님의 긍휼을 입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많은 사람들이 회개할 기회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집을 부리며 회개하지 않음으로써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다고 증거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며 회개를 촉구하실 때마다, 참으로 마음을 찢고 진실하게 회개하는지요? 주님이 하신 첫 번째 외침을 기억하십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마 4:17) 오늘도 참된 회개로 하나님의 은총 안에 거하는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며 내가 부끄럽고 낮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칩이니이다”(스 9:6)

기도 제목 ① 진실한 회개를 할 수 있는 은총을 주소서. ② 총력 교회주변 전도를 통하여 교회주변의 모든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

백성들의 죄로 인하여 에스라가 크게 회개하는 것을 보고 백성들도 마음에 큰 고통을 느끼며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이방인 아내들과 그 소생들을 모두 돌려보내기로 결단합니다.(3절) 하나님 앞에서 죄악을 청산하고 거룩한 삶을 살기로 작정한(3a) 백성들은 여전히 죄악 속에 헤매고 있던 이스라엘에게 소망이었습니다.(2절) 아무리 죄악이 관영한 세상이라고 하더라도 그 가운데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신실한 성도들이 있고, 그들의 기도를 통해서 나머지 세상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겠지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수많은 영혼들을 위해서도 영적으로 깨어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에스라는 금식을 선포하고 백성들로 하여금 금식에 참여하도록 합니다. 백성들의 회개는 여기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품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온전한 순종으로 나아갑니다. 그리하여 자기들이 사랑하던 이방인 아내와 심지어는 자녀들까지 다 내어보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희생을 감수한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회개입니다. 회개는 단지 눈물을 흘리고 몇 마디 말로 기도하는 데에 그치지 않습니다. 죄를 단호히 버리고 돌아서 말씀에 순종하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 참된 회개이며 믿음의 실천입니다.

“이제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 버리라 하니”(스 10:11)

기도 제목 ① 죄에 대하여 단호한 신앙을 소유하게 하소서. ② 선교위원회에 세움 받은 모든 일꾼들이 자기를 부인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는 복음의 일꾼들이 되게 하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

제3차 바벨론 포로귀환의 배경이 되는 내용입니다. 이 당시 느헤미야는 왕의 총애와 신임을 받는 신하만이 오를 수 있는 왕의 술 관원이었습니다. 포로출신으로는 꿈도 꿀 수 없던 높은 지위에 올라 있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자신이 개인적으로 누리고 있는 축복에 빠져 지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느헤미야는 늘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생각하였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생각은 어디에 집중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생각하는 느헤미야 같이 우리의 관심이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과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에만 집중되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에게 들려온 예루살렘의 소식은 비통한 소식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이 큰 환난을 당하여 성이 부서지고 성문이 불탔다는 소식이었습니다.(1~3절) 이 소식을 듣고서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금식하며 간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범죄하여 악을 행하고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음을 고백합니다.(7절) 그러면서 이스라엘은 주의 백성임을 강조하며 자신의 기도를 들어 줄 것을 간구합니다.(10~11절)

느헤미야의 기도는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중보를 완성하신 예수님께서서는 성령님을 보내시어 우리를 인도하시며 끊임없이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지라도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십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순종함으로 회개를 촉구하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의 귀가 열리기를 원합니다.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느 1:7)

기도 제목 ① 하나님의 교회와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소서. ②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으로 가득한 여름 수련회가 되게 하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

얼굴에 수심이 있는 느헤미야에게 아닥사스다 왕은 마음에 근심이 있는 까닭을 묻습니다.(1~2절) 왕의 질문에 잘못 대답하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위험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담대하고 지혜롭게 자신의 고통을 말합니다.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타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3절)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은혜로 왕의 호의를 받게 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는 특권을 부여받게 됩니다.(7~8절)

역사는 아닥사스다를 무기력하고 신경질적이며 오점을 수없이 남긴 왕으로 증언합니다. 그런 그가 자비를 베풀어서 느헤미야가 민족의 재건사업을 간청할 기회를 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자를 오히려 당신의 도구로 삼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였습니다. 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선한 손으로 그를 도우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8절)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도착한 직후 백성들에게 성을 재건하자고 제안하며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행하신 일들을 자세히 말함으로 백성들에게 소망을 안겨줍니다.(17~18절)

선한 일을 위한 열심을 품고, 주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며 헌신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선한 손으로 도우시고 그를 통해서 주님의 교회를 세워 가십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일꾼으로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지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느 2:18)

기도 제목 ① 십자가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며 살게 하소서. ② 총력 교회주변 전도에 모든 남전도회원들이 참여하게 하시고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

느헤미야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백성들이 힘을 얻어 각각 자기의 힘을 다하여 성벽을 건축합니다. 느헤미야의 말을 듣고서 가장 먼저 성벽재건에 참여한 사람은 대제사장 엘리아십이었습니다. 그는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양문을 건축하고 함대아 망대에서 하나넬 망대까지 성벽을 건축합니다. 이어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위치에서 힘을 다해 성벽과 문을 건축합니다. 제사장들, 금장새들, 향품 장사들, 고위 관리들, 여인들이 모두 이 거룩한 일에 참여하였습니다. 이들은 각자 다른 일을 하고 있었지만 성벽재건을 위한 하나님의 역사에는 한 마음으로 동참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의 마음에 주신 것을 형통하게 인도하셨으며 외부의 압력과 일부 내부의 회의적인 사람들의 무성의에도 불구하고 최산을 다한 38명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드고아 사람들의 귀족들이 자기 주민들의 공사에 분담하지 않았다고 지적합니다.(5절)

선교사역을 분담하지 않으면서도 때로는 많은 사람들의 비판이 있으며 회의적인 말을 듣기도 합니다. 그러나 십자가 복음만을 전하는 선교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우리 모두 분담하여 십자가를 지고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십자가 복음이 뿌려진 선교지의 영혼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지기 원합니다. 우리가 가는 선교지에 충현교회의 이름도, 우리의 이름도 남겨지면 안 되지만, 우리가 전도했던 영혼들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될 때 우리의 이름이 함께 기록된다면 얼마나 기쁠까 생각합니다. 땅끝까지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데 많은 단기선교사가 한 마음으로 동참하기 원합니다.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니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느 3:5)

기도 제목 ①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헌신되게 하소서. ② 위임목사님에게 진리의 말씀을 주셔서 날마다 새롭게 복음의 비밀을 담대하게 선포하게 하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

성벽을 재건하는 과정에서 대적들이 조롱하고 방해하지만 믿음으로 이겨나갑니다. 느헤미야가 오기 전까지는 유다와 예루살렘이 자기의 영향력 아래 있었는데 느헤미야의 출현과 유다 백성들이 일치단결하여 성을 재건함으로써 자신들의 입지가 크게 흔들렸기 때문입니다. 산발랏과 도비야의 비웃음과 조소는 표면적으로는 이스라엘의 수적, 조직적 허약성을 비방했으나 그들을 선민으로 백하신 하나님을 비웃는 힐난이었습니다. 느헤미야의 기도에도 나타나듯이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을 비웃는 교만을 드러내었습니다.(1~6절)

그들은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간다는 것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꾀하기를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 들어가서 살륙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11절) 합니다. 이 말을 들은 유다 백성들은 두려워서 낙심합니다. 느헤미야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라”(14절)고 격려합니다. 유다 백성은 용기를 내어 한 손으로 일을 하고 한 손으로 병기를 잡고(17절),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밤에는 파수하고 낮에는 일을 하였습니다.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우리에게 많은 방해가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만이 답”임을 분명히 체험한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외부 방해세력에도 불구하고 포로귀환민들을 인솔하여 52일 만에 성벽을 완공한(느 6:15) 지도자의 고충을 이해할 때 십자가 복음으로 인도하시는 목사님을 위한 더 많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또한 우리도 “모든 것을 다 잃어 버려도 십자가만을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느 4:1)

기도 제목 ① 믿음에 굳게 서서 시험을 이기게 하소서. ② 찬양대원들이 마음 중심에서 나오는 영적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헌신하던 백성 가운데 원망과 부르짖음이 생겼습니다. 가뭄과 식량난, 과중한 세금, 가난한 자들에 대한 부자들의 착취 등으로 힘없는 백성들이 고생을 했기 때문입니다.(1~5절) 나라의 유지들과 관리들은 백성에게 담보를 잡고 돈을 빌려주고 높은 이자를 강요하는 등 악한 일들을 자행하였고, 가난한 백성들은 자식을 종으로 팔아 빚을 갚아나가는 곤경에 처하게 됩니다. 이에 느헤미야는 나라의 유지와 관리들을 크게 꾸짖습니다.(8절) 유지와 관리들을 꾸짖음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자칫하면 유지와 관리들이 그에게 등을 돌릴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담대하게 그들의 죄를 지적하였습니다.

느헤미야의 책망을 들은 유지들과 관리들은 겸손히 마음을 낮추고 자기들의 악행을 회개하고 고칩니다. 가난한 백성에게 이자 받기를 그치고, 이미 받은 이자를 돌려주며, 저당잡은 기업들을 돌려주기로 합니다.(10~12절)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서 이런 일들을 과감하게 행하였고 듣는 사람들의 마음이 찔림을 받고 고쳐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죄와 타협하지 않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행해야 합니다.

세상의 문화를 혼합한 말씀이 처처에 흥행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라는 말씀은 너무나 어렵다고 등을 돌리려 합니다. 십자가만을 순수하게 외치며 복음을 전하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시험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도 십자가의 복음만을 담대하게 외쳐야 합니다. 외롭고 힘든 길이지만 끝까지 십자가 복음만 전합시다.

“내 하나님이며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느 5:19)

기도 제목 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게 하소서. ② 교회학교 교사들이 자신을 온전히 부인하며 천국일꾼 양성에 더욱 헌신하게 하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

성벽재건을 멈추게 하기 위해 산발랏은 끈질기게 방해하며 느헤미야를 죽이기로 결심합니다. 느헤미야가 거절을 해도 네 번이나 만남을 제안합니다. 그러다가 다섯 번째는 “느헤미야가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하고 왕이 되려고 한다”(6절)라고 모함합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담대하게 대항합니다. 지금도 대적 마귀는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기 위하여 끈질기게 우리를 시험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에 맞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전진하며 끝까지 싸워야 합니다. 브헤다벨의 손자 둘라야의 아들 스마야까지 산발랏의 사주를 받고 성전 외소에 숨어 목숨을 건지도록 하라고 거짓 예언을 합니다.(10절) 느헤미야는 그 예언이 거짓임을 분별해 내고 그의 말을 따르지 않습니다. 성전 외소에 들어가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에게는 목숨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11절)

우리에게도 이런 현신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리 자신의 행복과 안전, 건강과 기쁨을 더 소중히 여기지는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고 마침내 승리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자신의 목숨을 아까와하지 않고 모두 내어 주셨습니다. 우리도 주님이 가신 그 길로 나아가도록 합시다. 시험이 오거나 핍박이 올 때마다, 환난이 올 때마다, 아니 평안할 때에도 매순간 십자가를 붙들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우리의 전 생애를 바치는 소중한 현신이 있기 원합니다.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었느니라”(느 6:13)

기도 제목 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게 하소서. ② 1·1·1 전도와 총력 교회주변 전도를 통하여 우리 이웃과 교회주변의 영혼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하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5절)로 시작하는 느헤미야의 인구조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모든 일을 행하였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유대인들을 계수하였습니다. 이 장의 계보(7~60절)는 느헤미야가 직접 인구조사를 실시해서 새로이 작성한 것이 아니라 에스라 2장 2~70절을 재정리한 것이므로 약간의 차이가 나타납니다. 성경에 족보가 여러 번 나옵니다. 유대인들에게 족보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임을 보장해 주는 자격증과도 같은 것이며, 하나님의 구속적인 통치와 섭리를 뜻하는 것입니다. 또한 유다 백성의 족보에서 솔로몬에게 노예 되었던 가나안 사람으로 추측하는 느디님 족속의 계보(60절)를 볼 수 있는 것은 이방인들에게도 미칠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에 대한 예표입니다.

성벽재건이 완료되자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을 지키기 위해서 충성된 사 람들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성문을 잘 관리할 것을 명령하고, 모든 예루살렘 거민에게도 각각 자기의 집 맞은편을 파수하라고 명령합니다. 대적이 언제 침략할지 모르니 늘 깨어서 지키라고 명한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한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선 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전 10:12)는 말씀과 같이 늘 깨어서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며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이름이 족보에 기록되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 있음을 매순간 체험하며 자기의 믿음의 성문을 잘 파수하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 하게 하시므로 ……”(느 7:5)

기도 제목 ① 날마다 회개의 눈물이 있게 하소서. ② 남녀 전도회가 복음전파의 사명을 다하게 하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

영적 대각성 집회가 학사 에스라를 중심으로 열립니다. 느헤미야 총독의 지도 하에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안정을 이루게 되었지만 백성들의 심령은 오랜 포로생활로 인하여 매우 상하고 곤고하였으며 마음에 참된 평안과 안식을 이루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성벽재건 공사를 마친 후 7월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수문 앞 광장에 일제히 모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갈급한 백성들은 학사 에스라를 청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말씀을 가르쳐 달라고 청했습니다. 그리하여 예루살렘에서 거국적인 말씀 사경회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백성들은 말씀을 깊이 깨달으며 크게 은혜를 받았습니다. 백성들은 말씀을 통하여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고, 열조의 때부터 지금까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며 불순종했던 지난 죄를 깨닫고 모두 회개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성령이 강하게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신 것입니다.

영적 대각성과 참된 부흥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때 일어납니다. (12절)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10절)는 말씀과 같이 우리의 참된 기쁨은 하나님으로 인한 것입니다. 영원의 세계를 맛보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만남으로 회복과 부흥의 역사가 일어남을 체험하십니까?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 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17절) 하는 영적 기쁨의 회복과 부흥의 은혜가 우리 심령에도 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ㄴ 8:8)

기도 제목 ① 목자 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살게 하소서. ② 총현의 재단(유지·동산·복지)들이 복음을 전하는 데 하나되게 하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

하나님과의 언약을 재확인하는 회개의 운동이 일어납니다. 초막절을 지킨 후에 백성들은 한자리에 모여 금식하며 굶은 배움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며 회개하였습니다.(1~3절)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6절)부터 시작한 하나님의 창조역사에서 이스라엘의 초기역사; 회고하면서 이스라엘의 죄를 자백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이 ‘언약의 주체’로 표현된 구약성경 신학의 축소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전 역사를 통해 언약에 충실하신 하나님의 변함없는 은총과 언약을 기억하는 이스라엘의 불순종이 그대로 대조되며 다시금 언약의 갱신을 간구하는 고백이(32~38절) 나옵니다.

여호와이신 주님은 우리의 고난을 감찰하시며, 부르짖음을 들으시고(9절), 굶주림에서 양식을 주시고 목마를 때 반석에서 물을 내셨습니다.(15절) 사십년 동안 들에서 기르시되 부족함이 없게 하셨음에도(21절) 우리는 순종하지 아니하고 주를 거역하며 십자가 안으로 돌아오기를 권면하는 말씀을 등지고 주의 십자가를 모독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일이 이스라엘에만 있는 것이 아니며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죄 중에 헤매며 다닐 때 결코 안식할 수 없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이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마 11:28) 하십니다. 참된 회개는 죄를 회개하며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풍성한 공활을 소망하며 예수님께로 돌아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바라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 공활과 자비를 구하십시오.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느 9:2)

기도 제목 ① 주님을 떠난 자들이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소서. ② 피택받은 일꾼들이 모든 교역을 통하여 자기를 부인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십자가의 정병이 되게 하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기 전에 나귀를 찾으십니다. 그것은 이 사야의 메시아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입니다.(사 62:11)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네 왕이 네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땀에 메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5절) 시온 딸은 예루살렘 성에 거하는 유다 백성, 즉 하나님의 선민을 가리킵니다. 주님은 예루살렘의 주인이시며 유다 백성의 왕이십니다. 그러나 왕이신 주님은 겸손하십니다. 그래서 나귀를 타시고 입성하십니다. 주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성육신 때와 비슷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관에게 거할 곳이 없어 마구간의 구유에 나신 주님(눅 2:12)은 우리에게 겸손의 본을 보여주십니다.(빌 2:6~9) 주님의 겸손은 죄인들과 병자들과 소외된 사람들과 함께 했던 모든 공생애 기간에 나타났습니다.

이제 주님이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무리들은 소리지며 환영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나”(9절) 그러나 그들은 주님이 다윗보다 더 크신 분이심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환영소리는 며칠 후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박게 하라.”고 외치는 소리로 변했기 때문입니다. 메시아를 온전히 의지하지 못한 결과, 그들은 결국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어리석은 사람이 됩니다. 그들은 죄로 물들어 있습니다. 그 곳은 강도의 굴혈이 되고 말았습니다. 주님은 성전을 정결케 하시길 원하십니다. 기도하는 집으로 만들기 원하셨습니다.(13절) 하나님의 선민이라 할지라도 교만한 마음으로 잘못을 회개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죄의 노예가 됩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회개를 평생동안 날마다 해야 합니다.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겼옷을 그 위에 얹으매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마 21:7)

기도 제목 ① 자기를 부인하고 겸손히 주님인 따라가게 하소서. ② 십자가 은총으로 충만한 학습 및 세례식이 되게 하시고 학습 및 세례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게 하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

자기 의와 불순종으로 하나님 나라를 거부해 온 유대 민족의 역사와 당시의 유대인에 대한 경고를 담고 있는 혼인잔치 비유(1~14절)입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의 권위에 도전하였다가 오히려 비유를 통한 책망을 받았던 유대 종교지도자들(마 21:23~22:14)은 예수님을 울무에 걸리게 하려고 3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정치적인 질문인 가이사의 것과 하나님의 것(15~22절), 신학적 질문인 부활에 대한 질문(23~33절)입니다. 종교적 율법에 대한 질문인 가장 큰 계명(34~40절)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모든 질문에 대하여 지체롭게 답변하셨으며 율법과 전통으로 도전하는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 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32절)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영원토록 다스리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죽게 하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매일 충현의 만사를 통하여 십자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말씀을 빼면 우리에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몰랐습니다. 율법과 전통을 철저히 지켜야 하는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들의 세계관과 종교관은 자기 의를 깨뜨릴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의와 전통의 쓴 뿌리를 붙잡고 자기를 주장하며 예수님을 십자가에 다시 못 박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함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은총을 덧입기를 원합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의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마 22:34~35)

기도 제목 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커지게 하소서. ② 단기선교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선교지의 영혼들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하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

율법의 상징인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나라를 배웁니다. 종교지도자들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말씀을 믿고 가르친다고 하면서 그 말씀을 빙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합니다. “화 있을진저”(13,15,16,23,25,27,29절)가 7번이나 나오며 예수님께서 종교지도자들을 향하여 책망하십니다. 그런데도 바리새인들은 계속 사람들에게 율법의 굴레를 씌우고 있으며 이런 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훼방꾼입니다.(13절)

저들이 구약성경을 대하면서도 예수를 배척한 까닭을 우리 자신에게 비추어서 묵상할 때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말씀을 왜곡해서 해석하였으며, 자기 의가 너무나 강했기 때문입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자기 부인으로 십자가를 지는 것이 힘들었기 때문에 거부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 길은 좁은 길이며, 낙타가 바늘 귀로 들어가는 은총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7가지 화로 유대 종교지도자들을 책망하셨지만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애탁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읍 같이”(37절)라고 하신 것은 은혜 베풀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은총이며 성경입니다. 계속해서 복음을 접하였지만 은총을 깨닫지 못하고 외식과 위선이 가득하여 “회칠한 무덤”(27절)과 같은 모습이 있습니다. 교회의 직분과 권위라는 특권외식에 매달려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하여 필요한 것은 회개와 순종입니다. 자기를 부인함으로 절대적인 행복이 있기 원합니다. 십자가의 은총을 덧입으며 십자가 복음을 증거하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마 23:27)

기도 제목 ① 예수님을 따라 자신을 부인하고 자신을 낮추게 하소서. ② 매주 일 등록하는 새가족들이 거듭나 보혈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들이 되게 하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

마지막 날은 우리에게 갑자기 찾아옵니다.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릅니다.(36절) 그 날이 오면 천지는 없어지게 되며, 두 사람이 함께 있다가 한 사람은 선택되고 한 사람은 버림을 받게 될 것입니다.(40~41절)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마 22:14)는 말씀처럼 분명한 택함이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마지막 날에 택함을 입을 것을 기다리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기다리는 사람으로서의 삶을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42절) 이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영적으로 깨어 있는 생활을 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준비하고 있으라”(44절)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깨어 있으면서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려 주는 것입니다. 이 삶은 경건의 능력으로 오는 믿음의 실천입니다.

선한 청지기와 악한 청지기 비유는(45~51절) 하나님께서 맡겨 주신 사명을 충성과 지체로 감당하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 큰 상급을 받게 될 것을 강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아 천국에 간다는 진리를 아는 것은 가장 큰 기쁨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깨어 있어 예비하는 삶을 사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삶의 십자가를 지며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날마다 자신을 돌아보며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선한 청지기로써 주의 귀한 말씀을 전파하는 사명을 다해야 합니다.

“그 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 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마 24:30)

기도 제목 ① 복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생활을 하게 하소서. ②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담당자들에게 기쁨과 감사의 헌신이 있게 하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

본문/마 25장 찬송가/175장

첫 번째 비유는 등을 들고 신랑을 기다리는 열 처녀 비유로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하며 순종으로 생활화된 믿음을 가리킵니다.(1~13절) 두 번째 비유는 달란트 비유로서 맡은 일에 충성해야 함을(14~30절), 세 번째 양과 염소의 비유는 종말론적 심판을 기억하면서 이웃에게 선을 베풀기를 힘써야 함을 역설합니다.(31~46절) 주의 재림은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벧후 3:9)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신랑 되신 예수께서 재림하실 것이니 그 날을 사모하며 예비해야 합니다. 주의 재림은 불시에 닥치며, 구원은 다른 사람이 대신 할 수 없으며, 회개의 기회를 놓치면 더 이상 기회가 없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영접해야 할 그리스도는 알지 못하는 사이에 지나간 작은 자 가운데 계십니다. 천국은 말구유에 나신 예수님의 모습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와 같이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24절)는 자세로 예수님을 왕의 궁궐에서 찾으며 한 달란트만 맡기심에 불평하는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창조주가 인간이 되어 낮은 말구유에 오신 은총을 체험하는 자만이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이 천국의 비밀임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은 버려진 자, 죄 많은 여인, 갈릴리 어부를 들어서 부활의 메신저로 사용하시며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요 4:29) 외치게 하십니다. 이 은혜를 힘입어 오직 십자가 복음만을 전하는 생애가 되기 원합니다.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마 25:45)

기도 제목 ① 늘 깨어 기도하는 성도가 되게 하소서. ② 봉사위원회의 모든 성김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봉사가 되게 하시고 오직 그리스도만 나타나게 하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

옥합을 가지고 나아온 한 여자의 모습입니다. 종교지도자들이 예수를 홍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는 장면과 예수님께서 자신이 수난 당하실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1~5절) 이를 계기로 가롯 유다의 배반(14~16절)→최후의 만찬(17~29절)→베드로의 예수님 부인 예고(30~35절)→겻세마네 동산 기도(36~46절)→예수님의 잡히심(47~56절)→가야바의 심문(57~68절)→베드로의 예수님 부인과 통곡(69~75절)으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완전한 인성을 가지신 분이기에 죽음을 앞두고 '배우 고민하지' (38절) 앓을 수 없었습니다. 세 번에 걸쳐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39,42절)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것은 생명까지 드린 절대 순종이었습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46절) 하심은 예수님의 체포와 죽음이 종교지도자들의 음모에 의한 것이지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예수님의 자발적인 결단이었습니다.

예수님을 파는 유다(47~50절), 여전히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고 자신의 의지를 내세워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린 베드로(51절), 예수를 버리고 모두 다 도망한 예수님의 제자들(56절), 예수를 잡은 자들, 대제사장 가야바와 서기관과 장로들(57절)이 등장하는 이 장에 한 여자가 예수님의 장례를 예비하는 옥합을 가지고 나아와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장면은 너무나 아름답습니다.(6~13절) 예수님의 장례는 십자가에 달리시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름 없는 한 여자가 예수님의 장례를 예비하였듯이 자기 부인과 순종으로 자기 십자가를 지며 우리의 옥합을 깨뜨리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마 26:13)

기도 제목 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살게 하소서. ② 위임목사님의 영육을 강건하게 하시며 성령님의 정결한 통로가 되게 하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모인 공회(총회)에서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였습니다.(1~2절) 빌라도로부터 예수님을 인계받은 군병들과 대제사장들,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조롱하며 욕하는 장면입니다. 또한 이들은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인정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예언하시기를 “제삼일에 살아나리라”(16:21, 17:23, 20:19) 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은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은 그 사실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시체를 도적 맞지 않기 위해 군병들이 무덤을 파수한 것은 초대 교회에서 “예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이 아니고 그의 제자들에 의해 시신이 도적 맞았다.”는 헛소문이 유포되었는가에 대한 배경을 보여줌으로써 예수님의 부활사건이 실제적, 역사적 사건임을 분명히 알게 합니다.

구속사역에 등장하는 마귀의 세력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은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을 믿었습니다. 불과 이를 전까지 “호산나”하며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도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22~23절)라며 소리칩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어야 할 제자들은 모두 도망갔습니다. 이것이 성경이며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거부하며, 예수님을 못 박으라고 의논하고, 바라바를 놓아 주라고 부르짖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며 좁은 길을 가기보다는 바라바를 외치는 우리의 심령을 깨뜨려 주옵소서.” 간절한 기도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 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 주니라”(마 27:26)

기도 제목 ① 끝까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게 하소서. ② 전도위원회에 세우신 모든 일꾼들에게 영혼구원의 열심을 주시고 은총의 도구로 사용되게 하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

복음의 최종적 메시지요 기독교 신앙의 핵심(고전 15:17)인 부활사건에 대한 기록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약속의 신실성과 메시아 되심이 증명되었으며 부활은 예수님의 구속사역을 성부 하나님께서 온전히 인정하셨다는 의미가 됩니다. 11~15절은 마 27:62~66과 연결되는 것으로 마태는 종교지도자들이 퍼뜨린 거짓 소문을 익히 알고 있었던 유대 독자들을 위해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 사실임을 증명하기 위한 기록입니다. 천사들로부터 예수님 부활의 소식을 들은 여인들은 더 이상 그 무덤 앞에서 머무를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기쁜 소식을 알리기 위해서 달음질하여야 했습니다.(8절)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평안하냐”(9절)하시며, 유대인들 중에서도 멸시 천대 받는 계층이었던 여인들에게 제일 먼저 보이시고,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함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손으로 만지는 가장 확실한 부활의 증인으로 삼으신 것은 은총입니다.

열한 사도들에게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19절)라고 명하신 것과, 제자들에게 지상명령을 부여하시기 전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리스도께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20절)고 선언하심으로 순간순간 그 약속을 붙잡고 의지할 수 있게 하십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증언하는 일은 당시의 제자들이나 우리 모두에게 요구되는 삶의 최우선 순위입니다. 부활의 기쁜 소식을 알리기 위하여 학교에서, 직장에서, 이웃에게, 땅 끝까지 달음질하여 나아가는 기쁨이 충만한 삶이 되기 원합니다. 자기를 부인하며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달음질할새”(마 28:8)

기도 제목 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게 하소서. ② 각 위원회와 교구, 부서를 섬기는 교역자들이 복음 위에 굳게 서서 십자가의 복음만을 담대히 선포하게 하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

구역예배교재

8월 구역 교재 초점

믿음의 순종
영혼 구원의 기쁨

믿음의 순종, 영혼구원의 기쁨

믿음은 우리 삶에 근원이 됩니다. 오직 믿음만이 좁은 길을 통해 열린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매순간 우리를 둘러싼 현실은 믿음의 길에서 떠날 것을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이것은 이미 믿음의 삶을 살았던 야곱이 겪은 문제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잊은 채 분주한 현실문제에 매여 있던 야곱에게 주신 말씀은 곧 우리를 향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의 시야는 현실의 문제가 아닌 복음을 몰라 죽어가는 영혼들이 보입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참 생명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 진짜 기적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십시오. 오직 그리스도의 터에 굳게 서서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금요모임	본 문	제 목	초 점
0801	창 35:1~5	벧엘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라	진심으로 회개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라
0808	마 4:18~25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예수님을 따라 영혼구원의 사명을 다하라
0815	행 3:1~10	기적이 주는 참 메시지	십자가를 통한 구원의 기적을 전하라
0822	막 8:34~37	무엇이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가?	자기를 부인하고 영혼구원에 초점을 맞추라
0829	마 7:24~27	두 기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기초하라

1. 구역예배 순서

찬 송	다같이
기 도	담당자
구역교재	인도자
합심기도	다같이
주기도문	다같이

2. 구역교재 전개

도 입	전 개	적 용
마음으로 路 공부를 위한 첫 단계입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그 길(路)을 걸어 봅니다.	말씀으로 路 공부를 위한 두 번째 단계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마음판에 새기는 길(路)입니다.	십자가로 路 공부를 위한 마지막 단계입니다. 성령께서 깨달음을 주시는 대로 삶 속에서 십자가의 길(路)을 걸어봅니다.
소요시간 10분	소요시간 25분	소요시간 15분

1과 베엘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라

| 초 점 |

진심으로 회개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라

| 찬 송 |

찬송가 491장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찬송가 440장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 본 문 | 창세기 35:1~5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엘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⁴⁾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 겹 근처 상수리나무 아래에 묻고 ⁽⁵⁾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우리가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하든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깊이 관여하시며 인도하십니다.

※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대해서 나누어 보십시오.

야곱은 아버지를 속이고 에서의 장자권을 훔친 후 형의 분노를 피하기 위해 집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고향을 떠나 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던 중에 하나님은 벰엘에서 야곱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창 28:15

20년간 야곱은 삼촌 라반의 집에서 살면서 그를 위해 일했고, 라반은 야곱이 처한 상황을 이용해 여러 번 그를 속였습니다.(창 31:41~42) 야곱의 모든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의 손은 여전히 그와 함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그를 잊어버리지 않으셨습니다.

※ 위임목사님의 설교를 반드시 읽어 보세요.

하나님은 베엘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셨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베엘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창 31:3

야곱은 비겁한 방법으로 삼촌의 집을 떠났고 이 사실을 안 라반이 야곱을 쫓아왔지만 하나님은 그를 보호하셨습니다. 또한 형 에서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주셨고 그에게 새 이름을 주시며 축복까지 해주셨습니다.

창 31:29

창 32:11

창 32:28

야곱의 믿음은 항상 흔들렸다

야곱의 믿음은 그의 일생 동안 물결치듯 오르내리기를 반복했습니다.

창 33:18~20

야곱은 계속해서 자신의 평안과 안락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그를 도와주시기 위해 그의 곁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며 자신의 길을 고수했습니다. 야곱의 믿음처럼 우리도 항상 하나님께 어떤 것을 약속하고 나서 곧장 잊어버립니다.

※ 세겜에서 야곱의 가족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설명해 보십시오(창 34장)

※ 최근에 나의 믿음을 흔들었던 일에 대해서 나누어 보십시오.

하나님은 변함없이 야곱을 사랑하셨다

야곱의 불신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변함없이 그를 사랑하셨습니다.

창 35:1 / 일어나 □□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네 형 에서의 낚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을 쌓으라

하나님은 야곱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 은총의 기회에 야곱은 돌이켰습니다. 야곱은 철저하게 회개했습니다. 마침내 그는 하나님께서 참으로 자신과 항상 함께 하셨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창 35:2~3

참 믿음은 십자가를 통한 회개에 기초한다

참된 회개가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진짜가 아닙니다.

마 3:2

마 4:17

예수님은 우리에게 천국의 문을 열어주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보혈 없이는 그 누구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자신을 나타내셨고, 참으로 그의 나라가 얼마나 가까이 와 있는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참 믿음은 신자를 천국으로 인도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천국을 맛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서 통치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천국이 가까이 왔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요 14:26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성령을 보내주시며 천국으로 가는 문을 보여주신 예수님께 마음에서 우러나는 참된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회개만이 살 길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우리의 모든 죄가 깨끗해 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혼자서 베엘로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모든 가족들과 주변 사람들을 함께 데리고 갔습니다.

창 35:4~5

행 16:31

하나님은 야곱에게 베엘로 올라가 그곳에 정착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우리 역시 믿음으로 천국에 갈 것입니다. 진심으로 회개하며 믿음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 간절한 기도 |

1.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십자가의 길을 걷게 하소서
2. 세상을 의지하였던 불신앙을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하소서
3. 구역원들이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게 하소서

2과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 초 점 |

예수님을 따라 영혼구원의 사명을 다하라

| 찬 송 |

찬송가 496장 새벽부터 우리

찬송가 451장 예수 영광 버리사

| 본 문 | 마태복음 4:18~25

⁽¹⁸⁾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¹⁹⁾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²⁰⁾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 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²⁴⁾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 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²⁵⁾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 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그의 형제 안드레를 불러 제자를 삼으실 때 어부였던 그들은 바다에 그물을 던지고 있었습니다.

마 4:19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다는 뜻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따르지만 잃어버린 영혼을 낚는 어부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들은 적극적으로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나서지도, 자신들의 믿음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기 위해 시간을 사용하지도 않습니다.

※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예수님을 모른 채 죽어가는 영혼들이 많습니다. 그들에게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사람을 낚는 좋은 어부가 되어야 합니다.

※ 위임목사님의 설교를 반드시 읽어 보세요.

그리스도를 따르자

우리는 사람들을 만나주셨던 그리스도를 따라야 합니다.

마 4:19~20 /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을 버려 두고 를 따르니라

이 땅에서의 사역기간 동안 예수님은 사람들을 사랑하셨고 그들을 위해 시간을 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부자나 가난한 자, 젊은이나 노인, 병자나 건강한 자 모두에게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든지 만나주셨습니다!

※ 예수님이 만나신 사람들에게 대해서 설명해 보십시오.

- 니고데모(요 3장) _____
- 수가성 여인(요 4장) _____
- 삭개오(눅 19장) _____

예수님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고 싶다면 단지 내가 좋아하는 몇몇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 없이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신 죽으심으로 구원하고자 하셨던 그 귀한 영혼들에게 다가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 복음전도를 위해서 내가 만났던 사람들에게 대해서 나누어 보십시오.

계 1:5 /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로 우리 에서 우리를 하시고

그리스도의 자비를 따르자

우리는 십자가에서 보여주셨던 그리스도의 자비를 따라야 합니다.

눅 23:34

예수님은 자신을 대적했던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악독한 저주를 내뱉고 있는 무리들을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예수님은 수치심으로 고통 받는 순간에도 한 영혼을 구원하셨습니다.

눅 23:42~43 / 이르되 _____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_____
하시니라

예수님은 죄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복음의 핵심입니다. 사람을 낚으려면 예수님이 주시는 사랑과 자비가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없이는 복음을 증언하는 모든 수고가 헛됩니다.

고전 13:2~3

※ 용서하기 힘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 경험이 있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나누어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르자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행함으로 그리스도를 따라야 합니다.

마 16:24

눅 9:23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의지와 방법대로 예수님을 따르려고 합니다. 그들은 결코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자신의 길을 고집하는 사람은 진정한 사랑이 없고 단지 자신이 좋아하는 사람들만을 만나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복종하셨습니다.

요 6:38 /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 □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 □ □ □의 □을 행하려 함이니라

우리들의 의지는 너무나 강합니다. 우리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고집하고, 우리의 뜻대로 일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은 불공평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어리석습니다!

※ 하나님을 원망하며 십자가를 무시했던 경험을 나누어 보십시오.

예수님은 죄인들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영생을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을 따르는 자들에게 그분의 명령을 위임하셨습니다.(마 28:18~20)

예수님은 우리를 통해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신을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람들을 낚는 어부가 되는 것을 뜻합니다.

※ 사람을 낚는 어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기 위해서 버려야 할 것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기 위해서 취해야 할 것

여러분은 사람들을 낚고 있습니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예수님을 따르고 있지 않다는 증거입니다.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하고 날마다 사람들을 낚기 위해 나가십시오. 이 세상은 죽어가는 영혼들로 가득 차 있고 그들에게는 살아계신 구세주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따라 영혼구원의 사명을 다하기 바랍니다.

| 간절한 기도 |

1.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게 하소서
2. 그리스도의 자비와 말씀으로 충만한 삶이 되게 하소서
3. 영혼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게 하소서

3과 기적이 주는 참 메시지

| 초 점 |

십자가를 통한 구원의 기적을 전하라

| 찬 송 |

찬송가 95장 나의 기쁨 나의 소망되시며

찬송가 92장 위에 계신 나의 친구

| 본 문 | 사도행전 3:1~10

“제 구 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㉞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㉟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㊱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오늘날의 많은 그리스도인들 역시 이전의 신자들처럼 항상 하나님께서 어떤 기적을 보여주시기를 갈망합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그 속에 담겨진 참 메시지를 깨닫지 못합니다.

※ 내가 직접 보았거나 경험했던 기적과 그 기적을 통해서 내가 깨달은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나누어 보십시오.

성령강림 후 첫 번째 기적은 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을 고친 사건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는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이 오시기까지 기다리라고 말씀하신 부분이 나옵니다.(4~8절) 사도행전 2장은 오순절 성령강림으로 시작하여(2~4절), 성령의 권능으로 충만해진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 3천 명이 구원받은 사건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41절)

※ 오순절 성령강림 후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 정리해 보십시오.(행 2장)

사도행전 3장은 신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신 후 처음으로 일어났던 기적에 대해 생생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평생 한 번도 걷지 못했던 사람이 걷고 뛰고 달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기적을 통해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 위임목사님의 설교를 반드시 읽어 보세요.

베드로와 요한은 기도하기 위해 성전으로 갔다

베드로와 요한은 기도하기 위해 성전으로 올라갔습니다.

행 3:1 / _____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은 구시쯤에 돌아가셨습니다. 이때 성전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지면서 둘로 나뉘어졌습니다.

마 27:46,51 / ⁽⁴⁶⁾ _____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_____ 하는 뜻이라 ⁽⁵¹⁾이에 이 로부터 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성소의 휘장은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고 있었습니다. 성소의 휘장이 나뉘어졌다는 것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새롭고 산 길이 열렸다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히 10:20

베드로와 요한은 기도하기 위해 그리고 우리의 죄 값을 대신 담당하신 그리스도의 희생에 대해 선포하기 위해 성전으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기도는 기적을 일으키고 우리가 전하는 메시지를 강력하게 만드는 원천입니다.

걷지 못하던 사람은 구걸하기 위해 성전으로 갔다

걷지 못하던 사람은 구걸하기 위해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성전에 갔습니다.

행 3:2 / 나면서 _____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
는 사람들에게 _____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걷지 못하던 사람의 상황은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역시 죄로 인해 절뚝거리며 걷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들입니다.

롬 3:10

롬 3:23

걷지 못하던 사람이 성전에 갔던 이유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기 위
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고 도움을 청하
기 위해 성전에 갔습니다. 그는 살기 위해 사람들의 동정심과 그들이
주는 돈 몇 톨에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기도하기 위해 성전을 찾았던
베드로, 요한과는 달리 이 사람은 구걸하고 세상적인 것을 얻기 위해
성전에 갔습니다.

※ 교회에 나오는 이유가 무엇인지 써 보십시오.

걷지 못하던 사람에게는 세상이 결코 줄 수 없었던 무언가가 필요했
습니다. 여러분 역시 세상이 줄 수 없는 무언가가 필요합니다.

견지 못하던 사람은 기적을 통해서 참 메시지를 깨달았다

견지 못하던 사람은 기적을 통해 참 메시지를 깨달았습니다.

행 3:3~5 /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_____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는 걸인 자신조차도 깨닫지 못했던 그의 참 필요를 꿰뚫어 보았습니다. 베드로는 기적을 통해 그에게 참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행 3:6~7

오늘날의 많은 신학자들과 목회자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성공과 부, 명예라는 기적을 찾고 있습니다. 그들은 주님께 이런 것들을 달라고 간구합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없습니다.

※ 지금 나의 신앙 중심에 십자가가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이 있습니까?

복음의 메시지를 통해 우리는 죄와 수치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평생 견지 못했던 이 사람은 이제 고침을 받았습니다.

행 3:8~10

베드로의 삶을 보십시오. 3년 넘게 그리스도를 따랐지만 예수님께 서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직전에 그가 구했던 것은 가장 높은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었습니다. 성령강림 후 베드로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를 전파했습니다.

※ 사도행전 3~4장에 기록된 베드로의 설교를 정리해 보십시오

벧전 1:7~9

기적은 우리에게 참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기적은 복음을 전하는 통로입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만을 전해야 합니다. 구원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위대한 기적입니다! 십자가를 통한 구원의 기적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 간절한 기도 |

1. 기적을 통해서 주시는 복음의 능력을 깨닫게 하소서
2. 참된 기적인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게 하소서
3. 구역원들이 믿음으로 사는 은총을 베풀어 주소서

4과 무엇이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가?

| 초 점 |

자기를 부인하고 영혼구원에 초점을 맞추라

| 찬 송 |

찬송가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찬송가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 본 문 | 마가복음 8:34~37

³⁴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
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
니라 ³⁵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
라 ³⁶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
엇이 유익하리요 ³⁷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
느냐

가장 중요한 것들은 모두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인간이라는 존재가 지니고 있는 진정한 아름다움과 소중함은 눈으로 볼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겉모습을 가꾸는 데 수많은 시간과 돈을 낭비합니다. 또한 잠시 머물다 갈 집을 꾸미는 데에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는지 모릅니다.

※ 지난 주간 나의 시간과 돈의 소비는 어떠했는지 나누어 보십시오.

막 10:23~25

예수님의 관심은 인간의 영혼에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모진 고통을 당하셨고, 물과 피를 다 쏟으며 죽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관심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영혼에 있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모습을 회개하고 십자가와 영혼에 관심을 가지십시오.

막 10:45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의 영혼이 얼마나 가치 있는 지에 대해 증명해 줍니다. 그 증거가 십자가입니다.

※ 위임목사님의 설교를 반드시 읽어 보세요.

우리의 영혼은 소중하다

예수님은 영혼의 소중함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막 8:34~36 /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_____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
지 _____ 자기 목숨을 잃으면 _____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 세상의 부, 권력, 성공을 좇는 것은 헛될 뿐입니다. 이 모든 것들
은 조금 있으면 썩어 없어지고 말 것입니다.

전 1:2

전 1:14

여러분은 자신의 영혼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세
상의 모든 것을 얻고도 자기 영혼을 잃어버린다면 아무런 유익이 없
습니다. 오히려 지옥에서의 영원한 죽음이라는 끔찍한 결과만이 있을
뿐입니다.

※ 전도서 2:11, 12:7~8 말씀이 전하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가치는 헤아릴 수 없다

십자가의 가치는 가치 헤아릴 수 없습니다.

골 1:20

극도의 스트레스와 고난 중에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나를 사랑하시는지는 하는지 의구심이 생긴다면 그때에는 십자가를 생각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는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이 결코 치를 수 없는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사 53:5~6

요 3:16

복음서의 기자들은 십자가의 고통을 아주 상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을 부인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허물 때문에 상하셨고 우리의 죄악 때문에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조차도 자신의 영혼의 가치를 깨달았습니다.(눅 23:42~43)

※ 십자가 앞에서 내 영혼의 가치에 대해서 나누어 보십시오.

우리들은 두 세계를 살고 있다

모든 사람들은 두 세계를 살아갑니다. 한 세계는 시간의 제한을 받는 곳이고 다른 세계는 시간이 존재하지 않는 곳입니다.

※ 우리가 살고 있는 두 세계에 대해서 나누어 보십시오.
(제2차 청지기훈련 책자 참조)

우리의 마음과 영혼은 끊임없이 영원의 세계에 초점을 두어야 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영의 일을 생각하는 데 시간을 쏟는다면 영원이라는 열매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대해 생각하면서 시간을 보낸다면 마지막 결승점에서 그 결과는 비참한 종말로 끝나고 말 것입니다.

약 1:11 / 해가 돌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_____ 꽃이 떨어져 그 모양
의 _____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_____

약 4:14 /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_____
_____ 나라

우리에게 남겨진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조금 후에 우리에게 일어날 일은 아무도 모릅니다. 두 세계를 살고 있는 우리의 관심이 이 땅의 세계에 있을 때 우리에게는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천국시민권자답게 그리스도의 세계(마 1:1)에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빌 3:20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우리 앞에 두 세계가 펼쳐집니다. 어리석은 부자처럼 땅에서의 부요함에 즐거워하지 마십시오.(눅 12:19) 지옥에서 후회하던 부자처럼 되지 마십시오.(눅 16:24)

눅 12:20

눅 16:31

이 땅에서의 삶은 아주 짧습니다. 이 땅의 삶, 그 이후의 운명은 영원합니다.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습니다. 이 둘은 영원합니다. 자신의 영혼에 대해 생각하십시오! “죄의 값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롬 6:23)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드십시오. 자존심과 혼잡한 이 세상이라는 덫에 걸리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항상 하나님의 나라가 최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영혼구원에 초점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 간절한 기도 |

1.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소중히 여기는 믿음을 주소서
2. 영혼구원을 위하여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게 하소서
3. 구역원들이 자기를 부인하는 기쁨의 삶을 살게 하소서

5과 두 기초

| 초 점 |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기초하라

| 찬 송 |

찬송가 491장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찬송가 204장 주의 말씀 듣고서

| 본 문 | 마태복음 7:24~27

²⁴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²⁵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치되 무너지지 아니 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²⁶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²⁷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치매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반면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것을 가볍게 여깁니다.

※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을 구분하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시 119:9,11

사 40:8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람들 중에도 이와 같이 어리석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매주일 예배를 드리며 설교를 듣지만 예배당 문을 나가기만 하면 들었던 것을 전혀 행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무시하거나 나중으로 미루고,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은 정말로 비극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의 인생을 세우는 기초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에 대해 어떻게 설명하셨는지 살펴보겠습니다.

※ 위임독서님의 설교를 반드시 읽어 보세요.

지혜로운 사람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마 7:24 /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_____는 그 집을
□□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반석은 견고한 기초입니다. 그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은 지극히 마땅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자신의 반석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안전하고 견고한 유일한 기초입니다.

시 62:2

고전 3:11

딤후 2:19 /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렸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여 또 _____ 불의에서 떠날 지어다 하였느니라

여러분의 인생은 견고한 기초 위에 세워져 있습니까? 여러분은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우고 있습니까? 지혜로운 사람의 집은 든든한 기초 덕분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마 7:25

어리석은 사람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마 7:26 / 나의 이 말을 듣고 _____는 그 집을 □□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어리석은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가 집을 짓는 데 최우선 순위가 아니었습니다. 그 대신 이 사람은 자신의 돈, 명예 그리고 가족을 다른 모든 것보다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것들이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 예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에 대해서 나누어 보십시오.

마 6:24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기도는 온통 하나님께 돈과 축복을 달라는 내용뿐입니다. 그들의 내면 깊은 곳에서는 예수님을 정말로 원하지도 않을뿐더러,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바라시는 것을 원하지도 않습니다. 그들의 주요 관심사는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얻는 데 있습니다.

마 7:27

세상에는 인생을 세우는 수많은 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명예, 권력, 쾌락, 자존심, 칭찬 위에 인생을 세웁니다. 여러분의 인생기초는 무엇입니까?

기초의 차이를 아는가?

반석 위에 세워진 집은 견고해서 흔들리지 않았지만, 모래 위에 지어진 집은 완전히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 내 신앙의 기초가 무엇인지 점검해 보십시오.

고전 10:4

비와 홍수, 바람이 똑같은 위력으로 두 사람의 집에 몰아쳤습니다. 차이는 어떤 기초 위에 지어졌느냐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인생의 폭풍이 몰아칠 때 흔들리지 않을 자신이 있습니까? 사실 우리 중 어느 누구도 인생의 폭풍을 피할 수 없습니다.

딤후 3:1~2

어리석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자신의 인생을 세우지 않습니다. 그들의 기초는 모래와 같습니다.(딤후 4:3~4) 참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딤후 3:14~17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진 기초는 영원토록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악한 영들은 우리에게 그럴듯한 기초를 보여주며 “안전하다.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속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신앙의 기초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 위에 기초한 삶이 되어야 합니다.

시 119:161 / 고관들이 거짓으로 나를 핍박하나 나의 마음은 주의 ☐ ☐
☐ 경외하나이다

요일 2:5~6 / 누구든지 _____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_____ 자기도 행할지니라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의 차이는 매우 단순한 데 있습니다. 그 기초가 무엇인가에 달려 있습니다. 아무리 외관상 화려하게 보일지라도 그 기초에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기초한 사람만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기초한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 간절한 기도 |

1. 예수 그리스도에 기초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2. 인생의 광풍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소서
3. 구역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전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남성구역예배를 위한 설교자료

‘남성구역예배’는
‘구역예배교재’ 중
‘제3과’를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바랍니다.

기적이 주는 참 메시지

⁽¹⁾제 구 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²⁾나면서 못 견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⁹⁾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¹⁰⁾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사도행전 3:1~10)

오늘날의 많은 그리스도인들 역시 이전의 신자들처럼 항상 하나님께서 어떤 기적을 보여주시기를 갈망합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에 담겨진 참 메시지를 깨닫지 못합니다. 성령강림 후 첫 번째 기적은 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을 고친 사건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는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이 오시기까지 기다리라고 말씀하신 부분이 나옵니다.(4~8절) 사도행전 2장은 오순절 성령강림으로 시작하여(2~4절), 성령의 권능으로 충만해진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 3천 명이 구원받은 사건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41절) 사도행전 3장은 신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신 후 처음으로 일어났던 기적에 대해 생생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평생 한 번도 걷지 못했던 사람이 걷고 뛰고 달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기적을 통해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이었을까요?

베드로와 요한은 기도하기 위해 성전으로 갔다

성경은 베드로와 요한이 “제 구 시”경에 기도하기 위해 성전으로 올라가고 있었다고 말합니다.(1절) 이 시간은 저녁제사 시간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숨을 거두셨을 때 성전의 휘장이 찢어지면서 둘로 나뉘어졌습니다.(마 27:51) 이 휘장은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고 있었습니다. 성전 휘장이 나뉘어졌다는 것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새롭고 산 길이 열렸다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기도하기 위해 그리고 우리의 죄 값을 대신 담당하신 그리스도의 희생을 선포하기 위해 성전으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기도는 기적을 일으키고 우리가 전하는 메시지를 강력하게 만드는 원천입니다.

걷지 못하던 사람은 구걸하기 위해 성전으로 갔다

걷지 못하던 사람은 구걸하기 위해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성전에 갔습니다.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

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2절) 그는 지금까지 한 번도 제대로 걷지 못했습니다. 그의 상황은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역시 죄로 인해 절뚝거리며 걷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 들입니다. 로마서 3:10은 말합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로마서 3:23의 말씀은 더 심각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이 성전에 갔던 목적은 기도하거나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고 도움을 청하기 위해 성전에 갔습니다. 그는 살기 위해 사람들의 동정심과 그들이 주는 돈 몇 톨에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기도하기 위해 성전을 찾았던 베드로, 요한과는 달리 이 사람은 구걸하고 세상적인 것을 얻기 위해 성전에 갔습니다. 여러분은 기도하기 위해 교회에 오십니까? 혹시 이 걷지 못하던 사람처럼 세상적인 것을 얻기 위해 습관적으로 교회에 오는 것은 아닙니까? 만약 여러분이 세상적인 것을 구하고 있다면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구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적인 것은 인간의 영혼을 만족시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걷지 못하던 사람에게는 세상이 결코 줄 수 없었던 무언가가 필요했습니다. 여러분 역시 세상이 줄 수 없는 무언가가 필요합니다.

걷지 못하던 사람은 기적을 통해서 참 메시지를 깨달았다

걷지 못하던 사람은 이 기적을 통해 참 메시지를 깨달았습니다.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3~5절) 베드로는 걸인 자신조차도 깨닫지 못했던 그의 참 필요를 꿰뚫어 보았습니다. 베드로는 기적을 통해 그에게 참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베드로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큰 은사가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6~7절) 오늘날의 많은 신학자들과 목회자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성공과 부, 명예라는 기적을 찾고 있습니다. 그들은 주님께 이런 것들을 달라고 간구합니다. 이런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은 없습니다. 실제로 그들은 무언가를 주는 것보다 얻는 것에 더 관심이 많습니다. 복음의 메시지를 통해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죄와 수치 가운데서 구원할 수 있습니다. 평생 걷지 못했던 이 사람은 이제 고침을 받았습니다.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8~10절)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입으로는 교회에 와서 진심으로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한다고 말하지만 여러분의 기도는 세상적인 자신의 욕망들로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놀라운 기적을 보여달라고 주님께 간구하지만 여러분의 심령은 예수님의 임재를 실제로 경험하고 있습니까? 베드로의 삶을 보십시오. 3년 넘게 그리스도를 따랐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직전에 그가 구했던 것은 가장 높은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었습니다. 성령강림 후 베드로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는 그리스도를 전파했습니다. 그의 위대한 설교는 사도행전 3장에서 시작하여 4장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말했습니다. 기적은 우리에게 참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기적은 복음을 전하는 통로입니다. 오늘날의 목회자들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무엇을 합니까? 그들은 자신의 지식과 언변술로 사람들에게 자신이 얼마나 위대한지 과시합니다. 우리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해야 합니다. 구원은 그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가장 위대한 기적입니다! 아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마태복음 16:24

충현의 만나 2008년 8월호

발행인 | 김성관

편집인 | 노광현

집필진 | 양재웅 유재진

발행처 | 충현교회 출판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전화 552-8200) [비매품]
